



렌터카 전복사고 3명 사망·4명 부상

어제 새벽 애월 해안도로서… 6명은 관광객으로 확인
최근 5년 제주서 렌터카 사고 3022건 발생 31명 사망
경찰 “렌터카 사고 운전 미숙·초행길 과속 원인 많아”

여름휴가철 제주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8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소나타 렌터카 차량이 갯길에 있던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탑승자 7명 중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으며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2명 등 총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탑승자 채혈을 통해 음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 24분쯤에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A씨(38)가 몰던 코나 SUV 렌터카와 B씨(54)가 몰던 승용차가 충돌해 렌터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등 총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렌터카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

준이었으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3022건으로 31명이 사망하고 5285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제주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의 10~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에만 이달 20일까지 총 284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64명이 부상을 입었다.

렌터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별 여행·소규모 그룹 여행 등 여행 패턴의 변화로 렌터카 이용객이 급증하며 운전 경험이 적은 운전자들의 이용률이 높아진 점과 초행길임에도 여행지에서의 들뜬 마음에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을 일삼는 무질서한 운전자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유관기관에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통사

고 다발 지역에 대한 도로 구조·시설물 개선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및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해 왔지만 렌터카 교통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관계자는 “제주의 변화무쌍한 날씨를 비롯해 커브길·회전교차로 등 낯선 도로와 운전 환경에 대해 렌터카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출발 전 필수로 안전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자격을 강화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20일 새벽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

강희만기자

여성 납치·성범죄 中 불체자 2명 항소 기각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폭행·갈취한 것도 모자라 유사 성행위까지 저질러 중형을 선고 받은 중국인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A(42)씨와 B(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C(40대·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2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버스안 추행혐의 70대 지법 “증거없다… 무죄”

버스에서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에선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6월 30일 오후 4시10분 제주 대중교통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하자 도중 우연히 피해자 허리 쪽을 톡 건넌 것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도 “당시 버스 블랙박스에는 범행을 특정할 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즉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송은범기자



노형동 차량 정비소 화재… 차량 12대 피해

연기 흡입 직원 1명 병원 이송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20일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8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 초진을 완료했으며 9분 뒤 화재를 모두 진압했다.

이 불로 정비소 건물에 있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직원 1명, 손님

1명 등 총 4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정비소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도 정비소 내부에서 정비 중이던 차량 2대가 소실되고 차량 10대가 수열 피해를 입었으며, 정비소 건물 일부도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정비소 뒤쪽 폐지와 폐기물 등을 모아둔 곳에서 처음 불이 시작돼 내부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하루 2000명대 코로나 확진 눈앞

지난 19일 총 1940명 감염
정부 코로나19 대책 발표
요양병원 ‘접촉면회’ 중단

제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명을 넘어섰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하루 동안 19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5시까지 12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2968명으로, 25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에선 800~900명대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내다 지난 16일부터 1000명대를 넘어섰다. 16일 1033명에 이어 17일 832명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18일 1221명, 19일엔 1940명으로 2000명에 육박했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 역시 1000

명을 훌쩍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 사이 총 7725명이 확진된 가운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104명을 나타냈다. 이는 전주 대비 4196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달 들어 확진자 수는 1만3719명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7279명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사망자와 도내 위중증 환자는 없으며, 치명률은 0.07%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4000여 병상을 더 확보하는 등 추가 재유행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건강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병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2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